

제3회 전국 회현(안향)선생 휘호대회 서제

한 문	<p>1. 山立祗祗色 溪行豐豐聲 幽人心有會 半夜倚高亭 <small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景濂亭〉 _慎齋 周世鵬</small></p> <p>2. 天地瘡痍日 猶聞絃誦聲 溪山白雲洞 風月景濂亭 <small style="text-align: right;">_杜谷 洪宇定</small></p> <p>3. 顏生四勿 曾氏三省 仰高鑽堅 瞻前忽後 偉 學聖忘勞 景幾何如 <small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道東曲 中〉 _慎齋 周世鵬</small></p> <p>4. 竹溪風月煥宮牆 肇被恩光作國庠 絃誦可能追白鹿 明誠誰似導南康 <small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竹溪書院〉 _退溪 李滉</small></p> <p>5. 麒麟公子白裘狐 寶玦珊瑚劔轆轤 上國觀風思季札 塗山贄玉愧扶婁 <small style="text-align: right;">_晦軒 安珣</small></p>
한 글	<p>1. 받가는 더 하라바 문진늘 웃디마라 사르미 드외여서 조수를 번홀것사 므으매 닛디 문혀여 오락가락 흐노라 <small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문진가(問津歌)〉 _신재(慎齋) 주세붕(周世鵬)</small></p> <p>2. 사름사름마다 군자를 원하느니 밋디 문혀요문 문보는 싸히이다 진실로 원커시든 이룰 문져 삼가쇼셔 <small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군자가(君子歌)〉 _신재(慎齋) 주세붕(周世鵬)</small></p> <p>3. 속수루 복전대 승림정자 초암동 옥금계 취원루 위에 취한듯 깨인듯 울긋불긋 꽃 피고 비 내리는 산속에서 아아 흥에 겨워 노는 모습 그 어떠하니잇고 <small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죽계별곡 중에서〉 _근재(謹齋) 안축(安軸)</small></p> <p>4. 마음의 근원은 거울 같이 맑은데 기질의 찌꺼기가 탐욕을 부른다네 모름지기 아침마다 깨끗이 닦을지니 구름 걷히고 비 그치면 맑은 연못 보리라 <small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소수십경(紹修十景)중 일신재(日新齋)〉 _면우(旉宇) 곽종석(郭鍾錫)</small></p>